#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님이라 불러주오

## 회복적 생활교육 리더양성과정 41명 수료

## 160시간 연수일정, 인성교육의 디딤돌

전남 도내 교사 41명이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로 탄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4일 보성군청소년수련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리더양성과정 직무연수 수료식을 갖고 연수일정을 마친 41명에게 영예의 수료증을 전달했다.

전남 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끄는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직무연수는 지난 2월 15일 시작해 160 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처벌위주의 생활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따뜻한 생활교육과 관계회복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41명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돼 주말연수 월 2회, 숙박연수 3회 등의 연수일정을 소화했으며, 이론 습득과 현장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학년초 회복적 학급 운영, 문제해결서클 운영 등을 연수 내용에 포함시켜 학급 내 갈등을 회복서클로 해소하고 구성원 간 갈등조정, 비폭력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연수를 마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함은 물론 학교 컨설팅 및 각종 교원연수의 강사로 활동하는 등 회복적 생활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난 8월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 화해조정이 부각되면서 이번 연수생들의 역할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동료 교사들과 학생 생활교육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관계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학교구성원 간 관계회복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통한 생활교육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산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과 지역별 연구회 활성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허성은 기자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 특강 연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겨울방학기간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수영 특강반을 개설한다. 방학 수영 특강은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수영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특강반은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과정으로 12개반이 운영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특강반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과정이며 11개 반이 운영된다.

수영특강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회관 수영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특강반 운영 기간까지 월 이용요금을 완납하면 된다. 각 반별 25명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접수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12월 말까지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권래용 관장은"이번 겨울방학 수영 특강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기 중 운동부족으로 인한 체력 회복과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익히고 일반인들에게는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생활 체육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접수방법과 특강반 시간표는 회관 홈페이지(http://lib.gen.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인호 기자

## 화순, 찾아가는 영화인문학 큰 호응

화순공공도서관은 지난달 20일 능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13일 화순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3개 학교, 총 6회에 걸쳐 '고3 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인문학'을 운영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인문학'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인문학에 다가갈 기회를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영화 관람 및 인문학 강연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은 영화 '굿 윌 헌팅', '인생은 아름다워'를 관람하고, 작품 속에 나타난 인간과 세계를 따스한 시선으로 돌아보며 '나'와 '세상'에 대해 인문학적 시각에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진도교육청, '꿈키움 마을학교' 발표회

진도교육청과 꿈키움 마을학교가 지난 12일 마을학교 아이들이 일년 동안 익힌 전통 북놀이와 오케스트라 발표회를 개최해 학부모·지역민의 큰호응을 얻었다.

꿈키움 마을학교는 2019년 진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전통 북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명량대첩 축제' 및 군민의 날 '북놀이 퍼레이드' 등 마을 공동행사에 참여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잔치로 발전시켜 왔다.

발표회를 준비한 꿈키움 마을학교 방계화 대표는"싫어요, 몰라요, 없어요. 단답형 대답만 하는 아이들에게 신명나는 전통 북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키워주고 자신감에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을학교 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나주교육청, 놀이로 배우는 진로교실 개최

나주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산포초·세지초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로 배우는 진로교실'을 진행했다.

진로교실은 학생들에게 직업세계 이해 및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관을 파악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학부모진로체험단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진로교실은 진로적성상담사 1급 자격증 과정과 '놀이로 배우는 진로교실'을 수료한 후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지도안을 연구·개발하여, 이론과 놀이를 접목한 진로수업지도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계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진로체험지원단의 박성은 학부모는 "다양한 진로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생각해보고 찾아 갈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다 " 면서 "놀이로 배우는 진로교실은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 하기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로 꾸며 학생들이 다양한 교구를 통해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나주교육지원청 김영길 교육장은 "진로·샌드아트·음악줄넘기·독서분야의 학부모의 재능기부가 학교현장에서는 좋은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어, 분야별 학부모의 재능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나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광양중마유치원, 아름다운 학교賞 수상

광양중마유치원은지난 13일,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제20회 아름다운학교賞'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학교賞'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환경부, 각 시도교육청이 후원해 배움과 나눔의 학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학교를 발굴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상이다.

매년 아름다운학교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유초중고가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교육전문가의 엄격한 실사와 확인과정을 거쳐 전국에서 아름다운 학교를 선정한다.

놀이와 쉼이 있는 광양중마유치원은 안전하고 쉽게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놀이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우리 아이들이 놀며 배우며 생각하는 공간으로 마을 공동체와 동행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실천중심 교육을 진행함을 인정받아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우리놀이로 더 신나는 인성의 날을 매월 실시하여 만3세에서 5세의 아이를 중심으로 놀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